

같이 보기

: 사내 문화를 소개합니다



너의 생일은



홍창배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너의 이름은〉은 우리나라에서도 370만 관객수를 기록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장편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다채로운 빗줄을 자랑하는 혜성, 도시의 빛나는 야경과 청아한 낮, 한적하면서도 전통의 풍습이 살아있는 현대의 모습을 표현한 감독 특유의 작화가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영화의 시작은 두 주인공의 이런 대사와 함께 시작된다.

6월 18일,
별이 무수히 쏟아지던 날.
그것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름다운 생일이였다.

직장에서 생일을 축하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물론 모든 직장에서 생일 축하 문화가 없을 수도 있다.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퇴근 후 시간을 위해 케이크와 간식을 준비해서 축하만 하고 해산하는 것

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남부산산업보건센터의 생일 축하 문화는 조금은 더 특별하다.

대부분 생일 축하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선물은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닿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질적이든 정성을 담은 마음의 표현이든 간에 말이다.

생일 축하 행사의 주축은 윤정미 과장, 차진실 대리(우리는 차트루, 차진짜라고 부른다), 유지영 사원, 손성민 사원까지 네 명이다. 이들이 준비해주는 생일 축하는 거창하거나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만드는, 소소하지만 작은 기쁨을 주는 이벤트이다. 먼저 당월의 생일자를 위한 롤링페이퍼를 부서별로 돌린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롤링페이퍼를 손코팅으로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된다.



롤링 페이퍼 작성 중



손코팅 작업 중인 손성민 사원



“문구가 너무 찰떡이에요.”

“쑥스러웠지만 내심 흐뭇했어요.”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를 받은 사람, 축하해준 사람 모두 즐거워한다.

롤링 페이퍼 외에 생일 대상자에 대한 글로 꾸며진 미니 케이크를 만든다. 글귀의 언어가 유쾌하고, 재치 있다. 사실 이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미니 케이크는 감쪽한 모양만큼 맛있다. 물론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에 준비한 문구를 데코레이팅하여 생일자에게 선물한다. 월별 생일자들과 함께 축하멘트와 축하를 불러주고 다 함께 생일 인증샷도 함께 남기면 생일 축하행사는 종료된다. 생일 축하를 받은 직원들의 반응은 사뭇 뜨겁다.

“롤링페이퍼를 적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생일 때 내가 선물로 받으니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와요.”

취재하면서 직장에서의 생일 축하 문화에 대하여 찾아보았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은 꽃 배달과 함께 선물을 주는 곳도 있고, 이런 문화가 없는 곳도 있었다.

물론 생일에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함께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여전히 함께해 주는 이들에 대한 감사, 나의 생일을 함께 보내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 감사를 하는 날로. 🍷

